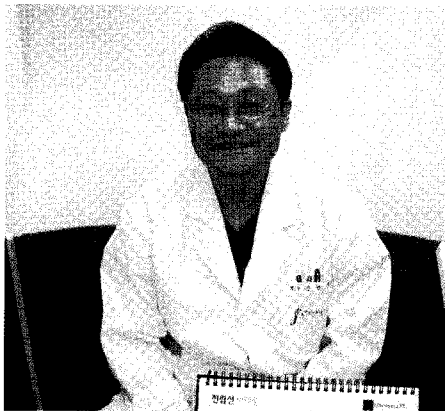


# 당뇨인 성기능장애 치료는 환자의 의지와 가족의 협조가 중요하다!



김영찬

포르테 비뇨기과 원장,  
세계 성(性)기능장애 학회 아시아 대표

당뇨는 꾸준히 관리를 하여야 하는 만성질환이다.

당뇨병의 극복 여부는 성기능을 보존하고 못하는 엄청난 차이를 초래하면서 당뇨병 환자를 행복과 불행의 문턱을 넘나들게 한다. 이번에 필자는 클리닉에서 당뇨병을 극복한 현명한 환자와 그렇지 못한 환자의 경험을 얘기하고자 한다.

## 당뇨병으로 인한 성기능장애를 극복하지 못한 환자

중소기업의 관리부장인 38세의 S씨.

최꼬리만한 봉급이지만 현실에 만족하며 생활하는 소극적인 직장인이었다.

S씨의 부인은 남편과는 대조적으로 야망이 높고, 보험 외관원으로 남부럽지 않는 수입을 확보하는 여자였다. 그리하여 S

씨는 능력이 있는 부인을 둔 덕분에 경제적으로 불편이 없이 지내는 편이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부인의 입김이 세어지고 남편의 위상은 뒷전이 되기 마련. 경제력이 있는 부인을 둔 부(?)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부인에게 대접을 받지 못하는 서러움도 있었다. 그러다 보니 화가 나면 술로서 화풀이를 하곤 하였다.

이렇게 악순환을 거듭하던 중에 건강이 말이 아니었고 5년 전부터는 당뇨가 생겼다. 건강의 적신호가 와도 S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예전 그대로의 생활을 하였고 당뇨병의 치료도 소홀히 하면서 세월을 보냈다.

그 만큼 당뇨치료가 번거롭고 별로 내키지 않았던 것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부인과 잠자리



에서 남성의 물건(?)을 삽입을 하고 몇 번 왕복운동을 하면 그만 발기가 죽어버리는 것이었다. 부인과 함께 어렵게 노력하여 발기를 성공시켰더라도 금방 사그러드는 불상사가 일어났다.

옆친 데 겹친 격으로 남자의 마지막 자존심마저 짓밟힌 S씨는 삶의 의미를 잃고 방황하다가 친구 손에 끌려 필자의 진료실을 찾게 되었다.

“오래 전부터 지병으로 당뇨를 앓고 있습니다. 병원에 가는 등 마는 등 하였고요... 당뇨병의 치료가 꼭 필요할까요? 선생님!”

장황한 사연을 늘어놓는 P씨는 말 못할 남성의 장애가 당뇨병으로 인한 것인 줄은 까마득히 몰랐듯이 얘기한다.

“당뇨병의 합병증 중에서 하나가 남성이 기능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페니스에 있는 핏줄과 신경이 높은 혈당으로 나빠지면 남자로서 역할에 이상이 생기는 것이죠.”

당뇨병은 피속에 당이 높아 오줌으로 당이 나오는 병으로 여러 가지 합병증이 더 문제가 된다. 이러한 합병증 중에 하나로서 남성 기능이 저하되며 이런 경우를 당뇨병 환자의 약 30~50%에서 볼 수 있다.

혈당이 높으면 페니스의 혈관이 좁아져 페니스로 피가 들어오는 것이 원활하지 못해지고 신경의 변성이 생겨 근육이나 혈관이 쉽게 작용을 못하게 되는 것이다.

“당뇨는 완치가 비교적 힘든 만성질환입니다. 하지만 치료를 잘하여 혈액 속의 혈당수치를 조절하면 병이 없는 정상상태로 유지할 수 있고 아무런 이상이 없이 지낼 수 있어요. 합병증을 예방하는 것이 당뇨병의 치료에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선생님, 일이 이렇게 되었는데 제 상태가 치료될까요?”

당뇨병 환자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반응으로 P씨는 재촉하듯이 불안하게 물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선 혈당을 조절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성기능장애 클리닉과 협진하시는 내과 교수께 진료를 함께 받으십시오. 현재 문제가 된 성기능장애는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충분한 성생활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환자분의 마음입니다. ‘나는 당뇨에 걸려 있어 신체의 기능에 이상이 초래될 것이고 이제 퇴물이 되었구나’ 하는 생각일랑 절대 가지지 마십시오. 이런 생각을 하면 남성의 그것은 쪼그라들며 힘 있게 팽창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어지지 않아 고개를 가우뚱하는 P씨에게





필자는 경구용 약물을 시도하였으나 아님나 다를까 S씨는 약물에 효과를 보이지 않았다. 그리하여 필자는 S씨에게 남자의 거기(?)에 주사를 놓는 자가주사요법을 권유하였다.

그 후 S씨는 한달에 한번씩 내원하면서 만족한 성생활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에 S씨는 눈에 띄게 외모가 말쑥해지고 옷차림도 세련되어 갔다.

“요사이 세월이 좋은 가 봅니다. 뭘 새로이 시작한 사업이라도 있습니까?”

하고 그 이유를 자세히 물어본 결과, 그것은 바로 무너진 남자의 자존심이 해결되었기 때문이었다.

여기서 S씨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알았지만 실체는 그렇지 않았다. S씨는 주사요법에 의존하여 남성의 기능에만 관심이 있었고 당뇨병의 치료를 소홀히 하였던 것이었다. 더구나 부부관계에서 남자의 역할은 다 하였지만 부인의 남편에 대한 태도는 예전과 별 달라지지 않았다.

S씨는 지속적으로 부인에게 무시를 당하였고 S씨의 마음 고생은 계속 되었던 것이었다. 성기능은 개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주위의 영향을 많이 받는 복잡한 현상이다.

특히 배우자의 태도에 따라 남성의 능력이 좌지우지 된다고 할 수 있다. 부인의 무시는 언행으로 인하여 S씨는 계속 자포자기한 생활로 당뇨의 성공적인 치료는 물론이거니와 결국 자가 주사요법까지도 효과가 없어지게 되었다.

“참 안타깝습니다. 치료가 잘 되는 줄 알았는데……. 다른 가능한 방법을 시도해보기로 합니다.”

그러나 시도한 다른 방법도 모두 실패하였다.

“당뇨병의 치료가 잘 되지 않고 합병증이 심하면 성기능의 치료가 잘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방법으로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약물이나 주사요법으로 치료가 되지 않을 때는 마지막 수단으로 음경보형물을 삽입하는 수술을 하여 정상적인 성행위가 가능하다.

음경내의 보형물 삽입은 1930년대부터 성기능장애의 치료로 시행되어 왔던 오래된 방법으로서 과학의 발달과 함께 지속적인 발전을 하여 현재는 기능적으로 우수하며 합병증이 없는 최신품이 개발되어 필요한 환자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는 치료법 중의 하나이다.

결국 마지막 방법인 보형물수술을 받으며 만족해 하면서 진료실을 나가는 S씨를 보면서 또 다시 진료실에서 S씨를 보지 않으면 하는 마음이었다. 그 만큼 S씨가 당뇨를 잘 조절하며 또한 부인이 남편을 이해해 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였다.

이처럼 당뇨병 환자가 성기능장애를 극복하기 위하여서는 당뇨병의 조절과 주위에서의 이해와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





### 당뇨병으로 인한 장애를 극복한 경우

금융업에서 명퇴를 하고 조그마한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 50대 중반의 P씨는 20년 전부터 당뇨병을 앓고 있었다. 이런 연유로 항상 P씨를 억누른 것은 건강이었다.

P씨는 지병을 극복하고자 철저하게 생활 습관을 건전하게 유지시켰고, 이의 결과로 혈당을 성공적으로 조절하여 그런대로 건강을 지켜오고 있었다. 그러나 P씨의 전반적인 컨디션은 그리 좋지 않았다. 이유없이 피곤하며 짜증이 나며 근력도 감소되었고 도대체가 부부관계를 하고 싶은 생각도 부쩍 줄었다. 그러던 중, P씨를 긴장시키는 현상이 요 근래 발생하였다.

부부관계 도중에 남성의 물건(?)이 힘이 없어지는 현상이 벌어졌다. 깜짝 놀란 P씨와 그의 부인은 아무리 노력해도 한번 수그러던 남성의 물건은 잠잠히 반응이 없어, 결국은 성행위를 중단하고 말았다. 그 후 P씨의 기능은 몇 번 살아나는 듯하더니, 또 다시 P씨의 남성은 힘을 쓰지 못하였고, 어쩌다 어렵게 반응을 보이더라도 금방 죽어버리는 것이었다. 처음 몇 번은 그대로 지나치던 P씨의 부인의 목소리가 높아지며 불만이 표출되기 시작하였다.

“섹스는 그렇게 밝히는 성격은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남자의 역할을 하여야죠... 마누라에게 면목이 없어요.....”

가뜩이나 경제적으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남자의 기능에도 문제가 있으니 P씨의 자존심은 말도 아니었다.

결국 P씨는 당뇨를 극복할 때의 자세처럼 용감히(?) 필자의 클리닉을 찾았다.

P씨는 성기능장애의 원인을 찾기위하여 혈액검사를 비롯하여 체지방, 골밀도 그리고 호르몬검사를 하였다. 그 결과, P씨는 호르몬의 저하의 소견을 보이고 있었다.

P씨는 호르몬 보충요법을 받기 시작하였고 성기능장애의 극복을 위하여 가장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경구용 발기치료제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다행히 P씨의 페니스는 힘있게 젊음을 되찾는 반응을 보였다. 필자가 처방한 치료법을 테스트하기 위하여 P씨는 여행을 다녀온다는 말을 남기고 간 뒤 며칠후 불쑥 진료실에 나타났다.

“선생님, 그것 참 희한하고 이렇게 좋은 것도 있었나요, 이 것은 정말 노벨상 감입니다.” P씨가 진료실 문을 열고 환하게 웃으며 들어오면서 하는 첫마디이었다.

“요사이 집에서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기분이 날아갈 듯하고요... 그렇게 부담스럽게도 부부관계가 이제는 더 하고 싶고 그리워 집니다.”

당당히 어깨를 펴고 나가는 P씨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역시 성기능장애를 과감히 직면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자세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다.